

## 층소된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정체성 불확실성과 내집단 동일시, 남북한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 간 관계\*

최 훈 석\*                      이 하 연                      정 지 인

성균관대학교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본 연구는 민족정체성과 국가정체성으로 구분되는 한국인의 다층 사회정체성 불확실성 및 동일시와 남북한 화해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대한민국 거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한 결과, 한민족정체성과 남한정체성의 불확실성과 동일시, 그리고 남북한 화해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에서 성별, 연령대, 학력, 거주지역,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가설화한 경로모형 검증 결과, 한민족정체성 불확실성은 남한에 대한 동일시와 상관이 없었지만, 남한정체성 불확실성은 한민족에 대한 동일시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한민족 동일시가 남북한 화해 태도를 매개로 화해 행동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는 상위범주와 하위범주 정체성 불확실성과 동일시 간 비대칭적 상보성 가정(Jung, Hogg, & Choi, 2016)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끝으로 본 연구 결과가 남북한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에서 지니는 함의를 논하였다.

주요어 : 사회정체성, 다층 사회정체성, 정체성 불확실성, 남북한 관계, 집단 간 화해

---

\* 교신저자: 최훈석,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hchoi@skku.edu

사회정체성이란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 범주에 기반을 두어 정의되는 정체성을 말한다(Tajfel, 1974; Tajfel & Turner, 1986). 사회정체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내집단)을 외집단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사회정체성에서 긍정성을 유지하고 신장하도록 동기화되며, 내집단의 긍정적 특징을 통해 자기를 정의함으로써 자존감을 경험한다(Abrams, 2015; Ellemers & Haslam, 2012). 사회정체성 이론의 기본 가정은 집단 간 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지지 증거를 축적하였으며, 집단 간 갈등, 편견과 차별의 이해 및 해소는 물론 집단 내 개인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참조. Abrams & Hogg, 2017; Hogg, 2016).

사회정체성 이론은 다층 사회정체성(multi-level social identity; Crisp & Hewstone, 2007)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특히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며, 한국처럼 민족정체성(한민족)과 국가정체성(남한)이 개인의 사회정체성에서 위계구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 간 태도와 행동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개념들을 제공한다(Jung, Hogg, & Choi, 2016, 2019).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의 사회정체성에서 상위 위계에 위치하는 한민족정체성과 하위 위계에 위치하는 남한정체성의 불확실성 및 각 범주에 대한 동일시, 그리고 남북한 간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는 집단 간 화해(intergroup reconciliation)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변수이다. 이는 남북한 관계처럼 장기적으로 고질화된 갈등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갈등 당사자들이 화해와 관련된 긍정적 신념과 정서를 보유하고, 화해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행위를 실행할 의도를 강하게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반영한다(Tropp, 2012). 이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다층 사회정체성 구조가 존재하는 남북한 갈등 상황에서 화해와 통합을 예측하는 심리적 기제를 상세화한다는 점

에서 학술적으로나 실용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 한국인의 다층 사회정체성

사회적 존재로서 개인은 국가, 지역, 성별, 종교, 직업 등 다양한 사회범주에 소속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개인의 자기-정체에 중요한 우세 범주 및 그에 연합된 사회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다(Turner & Reynolds, 2012). 특히 개인이 소속된 사회범주 간에 명시적으로 위계적 계층구조가 존재할 때 개인은 다층 사회정체성을 지닌다(Crisp & Hewstone, 2007). 예를 들어 대한민국 서울에 거주하는 구성원은 서울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며, 서울 시민이라는 하위범주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상위범주에 연합된 사회정체성은 위계적 구조로 표상된다. 마찬가지로,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 공동체로서의 한민족은 대한민국(남한)과 북한을 포섭하는 상위범주의 사회정체성에 해당한다. 이처럼 다층 사회정체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내외집단 구성원에 대한 개인의 태도 및 행동은 상대방이 내집단원 또는 외집단원으로 인식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Gaertner & Dovidio, 2000).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다층 사회정체성이 존재하는 집단 간 상황에서 하위범주 정체성이 우세할 때는 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 외집단 차별 등이 발생하는 반면, 상위범주 정체성이 우세할 때는 공동 상위범주에 속하는 집단 간에 우호적 태도와 행동이 발현된다(이에 대한 개관은 Dovidio, Gaertner, & Saguy, 2007 참조). 이를 남북한 관계에 적용하면, 한민족이라는 상위 공동범주에 연합된 사회정체성은 남북한 간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과 정적 관계를 보일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반면에, 남한이라는 하위범주에 연합된 사회정체성은 북한에 대한 외집단

인식을 유발하고, 그에 따라 집단 간 갈등을 고착화시키거나 증폭시키는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추론과 일관되게, 남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한민족’ 등 한집단 범주를 접화하였을 때 북한사람들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증진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유연재, 김혜숙, 2002). 또한, 한국인들의 국가(남한)정체성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비롯한 남한 내 이주민 집단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예측하였다(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 다층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사회정체성 불확실성과 동일시, 집단 간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

위에서 논의한 한민족정체성과 남한정체성은 다층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각각 상위범주와 하위범주에 연합된 개인의 동일시 수준을 반영하며, 특정 범주에 소속된 성원으로서 경험하는 긍정 정서, 애착, 다른 구성원들과 유사성을 느끼는 정도에 해당한다(Hogg & Hains, 1996). 따라서, 한민족/남한에 대한 동일시는 개인이 한민족 혹은 남한의 일원으로서 얼마나 강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의미한다(“나는 한민족의 일원인가?”, “나는 남한 사회의 일원인가?”). 이러한 동일시 정도와는 독립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범주가 하나의 집합적 실체로서 지닌 특징이 얼마나 확실한지 불확실한지에 따라서 정체성 불확실성(identity uncertainty)을 경험한다(Hogg, 2007). 즉, 한민족/남한정체성 불확실성은 한민족 혹은 남한이 하나의 집단으로서 얼마나 확실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느끼는지를 의미한다(“한민족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남한 국민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남한 국민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남한 국민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범주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범주들은 고정적인 특징들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 정의적 속성이 변화하기도 한다. 사회정체성 이론에서

파생된 정체성-불확실성 이론(Hogg, 2000, 2007)에 따르면 이처럼 자신이 속해 있는 중요한 사회범주의 정의적 속성이 고정적이지 않고 가변적일 때 사람들은 사회정체성에서 불확실성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정체성-불확실성 이론은 다음과 같이 전제한다.

첫째,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사회범주에 연합된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동기화된다. 즉, 사회정체성이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범주에 강하게 동일시함으로써 정체성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둘째, 다양한 사회범주들 가운데 실체성(entitativity)이 높은 사회범주일수록 개인이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실체성이 높을수록 분명하게 정의된 원형적 속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원형적 속성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정체성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Jung, Hogg, Livingstone, & Choi, 2019).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특정 사회범주나 집단에 연합된 사회정체성에서 불확실성을 경험하는 개인은 그러한 불확실성을 경감시키기 위해 소속 집단의 실체성을 과장하여 지각하며(예: Sherman, Hogg, & Maitner, 2009), 만약 이러한 전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집단으로부터의 동일시 정도를 줄이거나(예: Hogg, Meehan, & Farquharson, 2010) 대안 집단에 동일시하는 방법(예: Jung et al., 2018)을 채택한다.

정체성-불확실성 이론은 두 가지 이상의 사회정체성이 각기 다른 수준에서 층소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하며,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다층 사회정체성 구조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다층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개인이 한 수준의 사회범주에 대하여 느끼는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은 위계구조 내에서 다른 수준의 사회범주에 강하게 동일시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상위범주/하위범주 정체성 불확실성과 동일시 간 관계를 분석한 Jung 등(2016; Jung, Hogg, & Lewis, 2018)에 따르면, 포섭 관계에 있

는 다층 사회정체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 정체성 불확실성과 동일시 간에 비대칭적인 상보성이 발생한다.

이 모형에서는 하위범주 사회정체성 불확실성(“남한 국민으로서 우리는 누구인지가 얼마나 확실한가?”)은 상위수준 범주(한민족)에 동일시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반면에, 상위범주 사회정체성 불확실성(“한민족으로서 우리는 누구인지가 얼마나 확실한가?”)은 하위범주(남한)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서 해소하기 어렵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포섭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집단범주는 총소된 하위범주를 포섭하므로 상위범주 정체성에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어떤 요인이든 하위범주의 정체성 불확실성을 야기한다(Crisp & Hewstone, 2007). 따라서 하위범주에 대한 동일시는 상위범주의 정체성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또한, 한반도 상황에서 민족정체성은 남한정체성에 비해서 역사가 길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역사가 짧은 공유된 국적보다는 역사가 긴 공유된 민족성이 사회정체성과 연합된 자기불확실성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다층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한 수준의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수준의 사회범주에 동일시하는 것은 불확실성 감소 효과에서 위계적 비대칭성을 지닐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Jung 등(2016)은 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위범주/하위범주 사회정체성 불확실성과 동일시 간, 그리고 두 사회정체성과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상위범주인 한민족에 대한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은 하위범주인 남한에 대한 동일시와 상관이 없는 반면, 남한에 대한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은 상위범주인 한민족에 대한 동일시를 정적으로 예측했으며 이 효과는 한민족 범주의 전형(prototype)과 남한 범주의 전형 간의 차이를 크게 지각하는 응답자들에게서 관찰되었다. 그리고 예상과 일관되게 한민족에 대한 동일시 수준이 남북통일에 대한 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했다.

이 결과는 모형의 가정대로 상위범주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은 하위범주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해소되기 어려운 반면, 하위범주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은 상위범주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층 사회정체성 구조에서 사회정체성 불확실성과 동일시의 관계를 다룬 Jung 등(2016)의 선행 연구는 상-하위범주 간 비대칭적 상보성 가정에 근거하여 남북통일에 대한 구성원들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남북통일이라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대한 개인의 태도에 관여된 심리적 기제를 상세화하지는 못했다. 특히 남북한 관계는 분쟁 당사자들이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보다는 폭력적 경쟁 관계가 장기간 지속되어온 일종의 고질적 갈등(Bar-tal, 2000, 2007) 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고질적 집단 갈등의 해소와 평화 구축의 핵심 심리적 기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기제로 집단 간 화해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를 분석하였다.

집단 간 화해 심리의 핵심 요소는 적대 관계의 청산 및 평등하고 상호 신뢰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데 대한 구성원들의 태도 및 행동의도이며(Kelman, 2008; Nadler, 2012), 상대 집단에 대한 적대적/경쟁적 태도 감소, 우호적 신념 및 정서와 협력적/친사회적 행동의도의 증진 등을 포괄한다(참조. Shnabel, Nadler, Ullrich, Dovidio, & Carmi, 2009; Shnabel, Ullrich, Nadler, Dovidio, & Aydin, 2013). 본 연구에서는 Jung 등(2016)의 연구를 확장하여, 사회정체성과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이 남북 간 화해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를 통해 화해행동 의도를 예측하는 경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고질적 갈등 상황에서 집단 간 화해를 분석한 선행 연구(이에 대한 개관은 Bar-Tal & Halperin, 2013; Tropp, 2012 참조)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 강하게 동일시할수록 갈등 관계에 있는 외집단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내집단을 외집단보다 호의적으로 평

가하는 편향을 보인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 내집단이 외집단에 입힌 피해보다 외집단이 내집단에 입힌 피해를 과장해서 지각하고, 내집단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외집단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을 보인다. 이 관점에서 보면 남한에 대한 동일시가 강할수록 갈등 상대방인 북한과의 화해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화해 행동의도 역시 높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집단 간 관계에서 상위 공동범주화(superordinate categorization)의 효과를 다룬 선행 연구(Dovidio, Gaertner, & Saguy, 2009; Dovidio, Gaertner, Shnabel, Saugy, & Johnson, 2010)에 따르면, 갈등 당사자들이 서로를 내집단-외집단으로 구분하여 지각하지 않고 두 집단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의 상위공동범주로 지각할 때 집단 간 화해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촉진된다. 즉, 갈등 관계에 있는 집단 구성원들이 상대방 집단을 외집단으로 인식하지 않고 자신들과 공동의 범주에 속해있다고 인식하면 집단 간 화해에서 사회정체성의 부정적 효과가 경감된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보면 한민족에 대한 동일시가 강할수록 남한과 북한을 하나의 공동범주로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남북화해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화해 행동의도도 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추론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한민족/남한정체성 불확실성과 동일시 수준, 남북한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로모형을 검증하였다. 먼저 한 사회범주의 정체성 불확실성은 해당 범주에 대한 동일시를 약화시키기 때문에(Hogg et al., 2010), 한민족/남한정체성 불확실성 수준이 각각 한민족/남한에 대한 동일시 수준을 부적적으로 예측한다. 또한, 비대칭적 상보성 가정(Jung et al., 2016, 2018)과 일관되게, 한민족정체성(상위범주) 불확실성은 남한(하위범주)에 대한 동일시 수준과 상관 없이, 남한정체성 불확실성(하위범주)은 한민족(상위범주)에 대한 동일시 수준을 정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가설화하였다. 그리고 한민족에 대한 동일시가 남북한 화해에 대한 태도를

통해 화해 행동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할 것으로 예상했다.

## 방 법

### 연구대상 및 조사 방법

본 연구는 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와 남북 협력 종합연구(1/4년차)”의 일환으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18년 5월 ~ 6월 사이에 진행되었다. 연구 참가자는 대한민국(남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으로,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표집을 통하여 모집되었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는 표 1에 제시하였다.

### 측정도구

#### 한민족/남한에 대한 동일시

한민족 및 남한에 대한 동일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문항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참조. Hogg & Hains, 1996). 한민족 동일시는 “귀하는 한민족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 “귀하는 스스로 한민족에 대해서 얼마나 애착을 느끼니까?”, “전반적으로 귀하는 한민족 구성원들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하는 귀하가 한민족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게 느껴집니까?” 등 4개 문항(Cronbach's  $\alpha = .93$ )을 9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점 = 전혀 아니다 ~ 9점 = 매우 그렇다). 남한 동일시는 대상 집단을 수정한 네 개 문항(예: “귀하는 남한 국민과 자기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십니까?”; Cronbach's  $\alpha = .88$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두 구성개념 모두 네 개 문항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1. 인구통계 변수에 따른 참가자 분포

	구분	남성	여성	계
연령	20대	91	82	173
	30대	89	82	171
	40대	103	100	203
	50대	102	99	201
	60대 이상	112	140	252
학력	중졸 이하	36	60	96
	고졸	177	224	401
	대학 재학 이상	284	219	503
거주지역	서울	95	100	195
	경기/인천	150	151	301
	충청/대전	53	54	107
	전라/광주	50	49	99
	경상/울산/부산/대구	128	128	256
	강원	16	15	31
	제주	5	6	11
가계 월소득 수준	150만원 미만	8	14	22
	1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61	77	138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38	104	242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21	150	271
	500만원 이상	169	158	327
	계	497	503	1000

**한민족/남한 정체성 불확실성**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은 Jung 등(Jung et al., 2016; 2018)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 중 일부를 선별하여 측정하였다. 한민족정체성 불확실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귀하는 한민족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마음에 떠올릴 때 아래와 같은 느낌이 얼마나 됩니까?”를 묻고, 세 개의 형용사(“불확실한”, “확신이 없는”, “분명하지 않은”; Cronbach’s  $\alpha = .93$ )를 제시하여 9점 척도로 측정하였다(1점 = 전혀 느끼지 않는다 ~ 9점 = 매우 강하게 느낀다). 남한정체성 불확실성은 대

상 집단을 남한으로 변형하여 측정하였다(예: “귀하는 남한 국민으로서 우리는 누구인가를 마음에 떠올릴 때 ...”; Cronbach’s  $\alpha = .95$ ). 자료 분석에서는 두 구성개념 모두 세 개 형용사 문항의 평균을 사용하였다.

**남북한 화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

남북한 화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는 선행 연구(Shnabel et al., 2009; Waldzus, Mummendey, & Wenzel, 2005; Wenzel, Mummendey, Weber, & Waldzus, 2003)에서 사용한 문항을 일부 수정하

여 구성하였다. 남북한 화해에 대한 태도는 총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1점 =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7점 = 매우 동의한다): “나는 북한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나에게 북한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되갚음하는 것은 중요하다(역)”, “나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북한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역)”, “남북 간에 화합은 의미가 없다(역)”, “나는 북한 정권을 존중할 수 있다”. 부적 태도 문항들은 역채점하여 분석 시 여섯 개 문항 평균을 이용하였다(Cronbach's  $\alpha = .57$ ). Cronbach's  $\alpha$  지수는 문항 수가 10개 이내인 경우 신뢰도를 과소 추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Nunnally, 1978), Briggs와 Cheek(1986)의 제안에 따라 문항간 상관의 평균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Briggs와 Cheek(1986)은 .2에서 .4를 적정 수준으로 제시하며, 본 연구에서 화해 태도 문항간 상관 평균은 .19로 수용가능 수준에 근접하였다. 또한 해당 구성개념이 추상적 상위개념일 경우 신뢰도로 수용가능한 문항간 상관 평균 범위인 .15 ~ .20(Clark & Watson, 1995) 기준에도 부합한다.

남북한 화해를 위한 행동의도는 “통일관련 시민단체나 NGO에 정기적 기부를 한다”, “북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북한의 역사에 대한 글을 읽어본다”, “통일을 위해 경제적 부담(예: 세금 인상)을 진다”, “북한 문화체험을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대화를 시도해본다” 등 총 네 개 문항(1점 = 전혀 아니다 ~ 5점 = 매우 그렇다)으로 측정했다. 자료 분석에는 네 개 문항의 평균을 이용하였다(Cronbach's  $\alpha = .78$ ).

## 결 과

측정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수 간 상관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정체성-불확실성 이론(Hogg, 2000, 2007)의 기본 가정 및 관련 선행연구(Jung et al., 2016)와 일관되게, 본 연구에서도 한민족정체성 불확실성과 한민족 동일시 간에 -.27, 그리고 남한정체성 불확실성과 남한 동일시 간에 -.25의 약한 상관을 보여서 정체성 불확실성과 동일시는 개념적으로 독립적임을 알 수 있다.

표 2. 측정 변수들 간 기술통계치 및 상관

	1	2	3	4	5	6	7	8
1. 성별	1							
2. 연령	.05	1						
3. 한민족정체성 불확실성	.01	.04	1					
4. 남한정체성 불확실성	-.02	.03	.61***	1				
5. 한민족 동일시	.01	.16***	-.27***	.04	1			
6. 남한 동일시	.01	.19***	-.17***	-.25***	.46***	1		
7. 남북한 화해 태도	.07*	-.09**	-.27***	-.13***	.20***	.10**	1	
8. 남북한 화해 행동의도	.01	-.04	-.16***	-.09**	.11**	.03	.38***	1
평균 (표준편차)	-	46.84 (14.64)	5.12 (1.75)	4.65 (1.97)	6.41 (1.40)	7.04 (1.15)	4.15 (0.73)	2.85 (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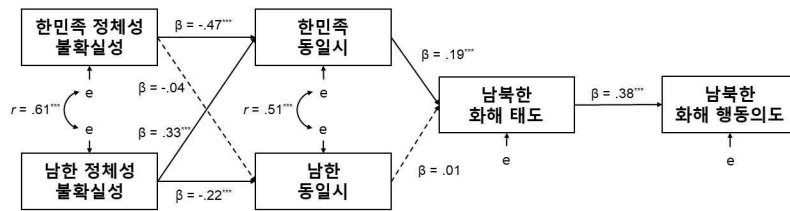
주. \*  $p < .05$ , \*\*  $p < .01$ , \*\*\*  $p < .001$ ;  $N = 1,000$

한민족/남한정체성 불확실성과 동일시 수준과 남북한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의 관계

한민족/남한정체성 불확실성과 동일시 수준, 남북한 화해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 간 관계에 대하여 연구 가설을 바탕으로 한 경로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IBM Amos version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모형과 분석 결과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연구 모형의 적합도 분석 결과,  $X^2(6) = 56.76$  ( $p < .001$ ), TLI = .896, CFI = .958, RMSEA(90% CI) = .092(.071, .115), SRMR = .066로 나타났다. CFI와 SRMR 지수는 좋은 적합도 기준을 충족하며(Bentler & Bonnett, 1980; Hu & Bentler, 1998), RMSEA 90% 신뢰구간 상한값 .10 이하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다소 한계가 있으나 RMSEA가 최대 지정값(.10) 이내이며, CFI 지수는 높으나 TLI가 낮은 것은 모형의 복잡성으로 인해 TLI 산출에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Kenny, 2014). 이를 토대로 다양한 근사 적합도 지수에 근거하여 본 모형의 적합도는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sup>1)</sup>

경로분석에서 나타난 각 변수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한민족/남한 정체성 불확실성은 예상과 일관되게 각각 한민

족/남한 동일시를 부적적으로 예측하였다, 한민족  $\beta = -.47$ ,  $p < .001$ , 남한  $\beta = -.22$ ,  $p < .001$ . 또한 비대칭적 상보성 가정과 일관되게 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은 남한 동일시 수준을 예측하지 못한 반면,  $\beta = -.04$ ,  $p = .283$ , 남한 정체성 불확실성은 한민족 동일시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beta = .33$ ,  $p < .001$ . 그리고 남한 동일시는 남북한 화해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지 못했지만,  $\beta = .01$ ,  $p = .696$ , 한민족 동일시는 남북한 화해에 대한 태도를 거쳐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민족 동일시가 화해 태도를 예측하는 경로  $\beta = .19$ ,  $p < .001$ , 화해 태도가 화해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경로  $\beta = .38$ ,  $p < .001$ ). 또한 경로모형에서의 예측변수들이 남북 화해 행동의도의 14%를 설명했다,  $p < .01$ . 추가적으로, 한민족/남한 동일시가 남북한 화해에 대한 행동의도를 직접 예측하는 경로를 추가한 대안 모형을 분석하여 연구 모형과의 비교를 실시한 결과, 이 대안 모형은 연구 모형과 근사하거나 낮은 수준의 합치도를 보였다,  $X^2(4) = 55.25$ , TLI = .843, CFI = .958, RMSEA(90% CI) = .113(.088, .141), SRMR = .066. 따라서 보다 간결한 모형인 본 연구 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주. \*\*\*  $p < .001$ ;  $N = 1,000$

그림 1. 한민족/남한정체성 불확실성, 동일시와 남북한 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연구모형)

1) 남북 화해태도를 묻은 6개 문항의 신뢰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역문항 3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문항 (Cronbach's  $\alpha = .55$ )만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했을 때는 모형의 부합도 지수가 모두 좋은 모형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CFI = .983, TLI = .958, RMSEA = .056(90% CI .034~.080), SRMR = .040.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거주 일반인들이 지닌 다층 사회정체성인 한민족/남한정체성 불확실성과 동일시 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남한과 북한의 공동 상위범주 정체성인 한민족정체성이 남북한 간 화해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경로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가설과 일관되게, 상위범주(한민족) 정체성 불확실성 수준은 상위범주(한민족) 동일시와 부적 관계를 지니지만 하위범주(남한) 동일시와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그리고 하위범주(남한) 동일시는 북한과의 화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를 예측하지 못하였다. 반면 하위범주(남한) 정체성 불확실성은 상위범주(한민족) 동일시를 정적으로 예측하였고, 상위범주(한민족) 동일시가 남북한 화해에 대한 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하고 최종적으로 화해 행동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한민족정체성 불확실성을 낮추고 동일시를 증진하면, 한민족의 하위범주에 해당하는 남북한 간 화해에 대한 우호적 태도 및 행동의도가 발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남북화해에 대한 태도에서 한민족/남한에 대한 동일시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과 더불어 각 사회범주에 연합된 불확실성의 효과를 동시에 평가하는 것은 한국과 같이 이중 사회정체성 구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회정체성 불확실성과 동일시의 효과를 상세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경로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한민족/남한정체성 불확실성과 동일시, 남북한 화해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서 본 연구의 가정과 일관되게 비대칭적 상보성이 관찰되었다. 이는 남북한 간 화해에 대한 호의적 태도 및 화해 행동의도를 조형하기 위해서는 한민족정체성의 불확실성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남한정체성 불확실성은 상위범주인 한민족에 동일시함으로써 경감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남북한 간 화해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가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이러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남북한 화해 태도 문항들의 신뢰도가 낮아서 후속 연구를 통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층 사회정체성에서 불확실성과 동일시 간의 관계가 정체성 간 유사성 또는 중심성(centrality)과 같은 유관 개념들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확장할 수 있다. 상위범주/하위범주 정체성 간 유사성이 클 경우, 한 수준에서의 정체성 불확실성이 높으면 다른 수준에서의 불확실성도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관찰된 상보성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Jung et al., 2016).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정체성 중심성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조절변수이다. 정체성 중심성이란 해당 정체성이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서 일관되게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정도(Cameron, 2004)를 의미하며, 정체성 불확실성이나 동일시와 마찬가지로 다층수준에서 독립적으로 경험된다. 특히 개인은 자신이 덜 중시하는 사회정체성보다는 중시하는 사회정체성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강하게 동기화된(Mullin & Hogg, 1998). 따라서 하위범주 정체성이 상위범주 정체성보다 중요하게 인식될 경우에만 하위범주 정체성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동기가 발현되고, 이는 상위범주에 대한 동일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Jung et al., 2018). 또한 다층 사회정체성 중심성과 불확실성, 동일시 간 관계에서 불확실성과 동일시 간 대안적 인과(순차) 관계도 가능하다. 즉, 본 연구에서 가정하였듯이 사회정체성 불확실성이 특정 사회범주에 대한 동일시 수준에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하위범주에 연합된 정체성 중심성과 동일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층소관계에 있는 정체성 불확실성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 간의 조절 효과 및 인과 관계에 대한 추가적 탐색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체성의 하위 요인에 따른 차별적 관계를 전제하지 않

기 때문에 단일차원으로 사회정체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사용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상위 및 하위범주와 연합된 정체성 불확실성이 내집단 애착(attachment)이나 찬양(glorification)과 같은 사회정체성 하위요인(Roccas, Klar, & Liviatan, 2006)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탐색하는 것도 흥미로운 시도일 수 있다.

집단 간 갈등 해소 및 화해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서구에서 태동하고 발전한 사회정체성 이론을 토대로 집단 간 화해와 갈등 해소를 저해하는 심리적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고 국내에서 보고된 집단 간 관계 연구 역시 서구의 추세와 동일하게 사회정체성 이론의 기본 가정을 확인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집단 간 화해에 방해가 되는 억제요인에 초점을 두고 집단 간 갈등의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사회정체성 이론의 관점에서 수행된 선행 연구들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외집단과의 갈등 해소 및 화해를 저해하는 방향의 심리 및 행동특징 조형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역설적으로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철회하는 것이 집단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이러한 심리상태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지만, 집단 간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동일시를 철회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가 얼마나 직접적인지, 그리고 건전한 집단 간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은 논쟁의 대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한민족 동일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국가(남한)정체성 불확실성을 높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국가(남한)에 대한 정체성 불확실성을 높이거나 동일시 수준을 낮추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

라 사회의 과편화, 과도한 개인화라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도 있다.

사회정체성 불확실성과 집단동일시, 남북 화해 태도 및 화해 행동의도 간의 관계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남북화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도 제공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남북간 화해에 대한 태도는 화해 행동의도를 정적으로 예측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북화해 및 통일에 관한 담론에서는 소위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논의들은 남북화해와 통일을 '경계위기', '통일 후 사회문화 통합문제' 등 다분히 추상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남북화해와 통일이 창출 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 및 신념구조를 형성하기 어렵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한민족 동일시는 남북 화해태도를 정적으로 예측한 반면 남한동일시는 남북 화해태도를 예측하지 못했다. 이 결과로부터 국민들이 한민족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니고 민족공동체와 공동운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를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교육과 계몽,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 등을 통해 '한민족공동체'라는 분명한 심적 표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정책도 필요하다. 이는 남북화해 태도 및 행동의도를 촉진하기 위해서 내집단에 대한 동일시를 철회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은 아닐 수 있으며, 그보다는 다양성을 수반한 통합된 한국 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남한(또는 북한)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확고한 한민족정체성을 지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저자 소개

최훈석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집단 과정 및 집단 간 관계를 연구

한다. 최근에는 개인주의 가치와 독립적 자기의 시너지모형을 적용하여 집단 효과성, 집단 간 화해와 갈등해소, 집단에서 의(義)와 충(忠)의 발현, 개인과 집단의 공동변영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이하연은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관심사로는 창의성을 비롯한 집단 수행과, 집단 간 갈등해소 및 사회통합 등이 있다.

정지인은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사회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참고문헌

김혜숙, 김도영, 신희천, 이주연 (2011). 다문화시대 한국인의 심리적 적응: 집단정체성, 문화적응 이데올로기와 접촉이 이주민에 대한 편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2), 51-89.

유연재, 김혜숙 (2000). '한집단'범주의 점화가 북한사람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91-112.

Abrams, D. (2015).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In M. E. Mikulincer, P. R. Shaver, M. Cooper, & R. J. Larsen (Eds.), *APA Handbook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ume 2: Group Processes* (pp. 203-228).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oi:10.1037/14342-008

Abrams, D., & Hogg, M. A. (2017). Twenty years of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research: A review of past progress and future prospects.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0, 561-569. doi:10.1177/1368430217709536

Bar-Tal, D. (2000). From intractable conflict through conflict resolution to reconciliation: Psychological analysis. *Political Psychology*, 21, 351-365. doi:10.1111/0162-895x.00192

Bar-Tal, D. (2007).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of intractable conflict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 1430-1453. doi:10.1177/0002764207302462

Bar-Tal, D., & Halperin, E. (2013). The psychology of intractable conflicts: Eruption, escalation, and peacemaking. In L. Huddy, D. O. Sears, and J. S. Levy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Psychology* (pp. 923-95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oi:10.1093/oxfordhb/9780199760107.013.0028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doi:10.1037//0033-2909.88.3.588

Briggs, S. R., & Cheek, J. M. (1986). The role of factor analysis in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personality scales. *Journal of Personality*, 54, 106-148. doi:10.1111/j.1467-6494.1986.tb00391.x

Cameron, J. E. (2004). A three-factor model of social identity. *Self and Identity*, 3, 239-262. doi:10.1080/13576500444000047

Campbell, D. T. (1965). Ethnocentric and other altruistic motives. In D. Levine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pp. 283-311).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Clark, L. A., & Watson, D. (1995). Constructing validity: Basic issues in objective scale development. *Psychological Assessment*, 7, 309. doi:10.1037/1040-3590.7.3.309

Crisp, R. J., & Hewstone, M. (2007). Multiple social categorization. In M.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ume 39, pp. 163-254). San Diego, CA, US: Academic Press.

- doi:10.1016/s0065-2601(06)39004-1
- Dovidio, J. F., Gaertner, S. L., & Saguy, T. (2007). Another view of "we": Majority and minority group perspectives on a common ingroup identity.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8*, 296-330. doi:10.1080/10463280701726132
- Dovidio, J. F., Gaertner, S. L., & Saguy, T. (2009). Commonality and the complexity of "we": Social attitudes and social chang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3*, 3-20. doi:10.1177/1088868308326751
- Dovidio, J. F., Gaertner, S. L., Shnabel, N., Saguy, T., & Johnson, J. (2010). Recategorization and prosocial behavior: Common in-group identity and a dual identity. In S. Stürmer and M. Snyder (Eds.), *Psychology of Prosocial Behavior: Group Processes, Intergroup Relations, and Helping* (pp. 191-207). Oxford: Wiley-Blackwell. doi: 10.1002/9781444307948.ch10
- Ellemers, N., & Haslam, S. A. (2012). Social identity theory. In P. A. M. Van Lange, A. W. Kruglanski,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379-398).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doi: 10.4135/9781446249222.n45
- Gaertner, S. L., & Dovidio, J. F. (2000). *Reducing intergroup bias: The Common Ingroup Identity Model*. Philadelphia, PA: The Psychology Press. doi:10.4324/9781315804576
- Hogg, M. A. (2000). Subject uncertainty reduction through self-categorization: A motivational theory of social identity processes. *European Review of Social Psychology, 11*, 223-255. doi:10.1080/14792772043000040
- Hogg, M. A. (2007). Uncertainty-identity theory. In M. P. Zanna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39, pp. 69-126). San Diego, CA: Academic Press. doi:10.1016/s0065-2601(06)39002-8
- Hogg, M. A. (2016). Social identity theory. In M. Shelly, H. Reeshma, & F. Neil (Eds.), *Understanding Peace and Conflict Through Social Identity Theory* (pp. 3-17).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doi:10.1007/978-3-319-29869-6\_1
- Hogg, M. A., & Hains, S. C. (1996). Intergroup relations and group solidarity: Effects of group identification and social beliefs on depersonalized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295-309. doi:10.1037//0022-3514.70.2.295
- Hogg, M. A., Meehan, C., & Farquharson, J. (2010). The solace of radicalism: Self-uncertainty and group identification in the face of threa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6*, 1061-1066. doi:10.1016/j.jesp.2010.05.005
- Hu, L. T., & Bentler, P. M. (1998). Fit indice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Sensitivity to underparameterized model misspecification. *Psychological Methods, 3*, 424-453. doi:10.1037//1082-989x.3.4.424
- Jung, J., Hogg, M. A., & Choi, H.-S. (2016). Reaching across the DMZ: Identity uncertainty and re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Political Psychology, 37*, 341-350. doi:10.1111/pops.12252
- Jung, J., Hogg, M. A., & Choi, H.-S. (2019). Recategorization and ingroup projection: Two processes of identity uncertainty reduction. *Journal of Theoretical Social Psychology, 3*, 97-114. doi:10.1002/jts5.37
- Jung, J., Hogg, M. A., & Lewis, G. J. (2018). Identity uncertainty and UK-Scottish relations: Different dynamics depending on relative identity centrality.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21*, 861-873. doi:10.1177/1368430216678329
- Jung, J., Hogg, M. A., Livingstone, A. G., & Choi,

- H.-S. (2019). From uncertain boundaries to uncertain identity: Effects of entitativity threat on identity - uncertainty and emigr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9*, 623-633. doi:10.1111/jasp.12622
- Kenny, D. A. (2014). Measuring model fit. <http://davidakenny.net/cm/fit.htm> 에서 인용.
- Kelman, H. C. (2008). Reconciliation from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In A. Nadler, T. Malloy, & J. D. Fisher,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conciliation* (pp. 15-3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oi:10.1093/acprof:oso/9780195300314.003.0002
- Mullin, B.-A., & Hogg, M. A. (1998). Dimensions of subjective uncertainty in social identification and minimal intergroup discrimin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7*, 345-365. doi:10.1111/j.2044-8309.1998.tb01176.x
- Nadler, A. (2012). Intergroup reconciliation: Definitions, processes, and future directions. In L. R. Tropp (Ed.), *The Oxford handbook of intergroup conflict* (pp. 291-30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oi:10.1093/oxfordhb/9780199747672.013.0017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McGraw-Hill.
- Roccas, S., Klar, Y., & Liviatan, I. (2006). The paradox of group-based guilt: Modes of national identification, conflict vehemence, and reactions to the in-group's moral viol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698-711. doi:10.1037/0022-3514.91.4.698
- Sherman, D. K., Hogg, M. A., & Maitner, A. T. (2009). Perceived polarization: Reconciling ingroup and intergroup perceptions under uncertainty.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2*, 95-109. doi:10.1177/1368430208098779
- Shnabel, N., Nadler, A., Ullrich, J., Dovidio, J. F., & Carmi, D. (2009). Promoting reconciliation through the satisfaction of the emotional needs of victimized and perpetrating group members: The needs-based model of reconcili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 1021-1030. doi:10.1177/0146167209336610
- Shnabel, N., Ullrich, J., Nadler, A., Dovidio, J. F., & Aydin, A. L. (2013). Warm or competent? Improving intergroup relations by addressing threatened identities of advantaged and disadvantaged group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3*, 482-492. doi:10.1002/ejsp.1975
- Tajfel, H. (1974).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behaviour. *Social Science Information, 13*, 65-93. doi:10.1177/053901847401300204
- Tajfel, H., & Turner, J. C. (1986).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behavior. In G. A. William & W. Stephen (Eds.),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pp. 276-293). Chicago: NelsonHall. doi:10.4324/9780203505984-16
- Tropp, L. R. (2012). *The Oxford Handbook of Intergroup Confli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doi:10.1093/oxfordhb/9780199747672.001.0001
- Turner, J. C., & Reynolds, K. J. (2012). Self-categorization theory. In P. A. Van Lange, A. W. Kruglanski, & E. T. Higgins (Eds.),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Vol. 2, pp. 399-417).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doi:10.4135/9781446249222.n46
- Waldzus, S., Mummendey, A., & Wenzel, M. (2005). When "different" means "worse": In-group prototypicality in changing intergroup contex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1*, 76-83. doi:10.1016/j.jesp.2004.05.006
- Wenzel, M., Mummendey, A., Weber, U., & Waldzus, S. (2003). The ingroup as pars pro toto: Projection from the ingroup onto the inclusive category as a precursor to social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discrimina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461-473. doi:10.1177/014616720  
2250913

1 차원고접수 : 2019. 09. 19.

수정원고접수 : 2019. 11. 06.

최종게재결정 : 2019. 12. 06.

## Relationship between Nested Social Identity Uncertainty, Group Identification, Reconciliatory Attitudes and Intentions in Korea

Hoon-Seok Choi

Sungkyunkwan University

Hayeon Lee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Jiin Jung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identity uncertainty and levels of social identification among Koreans whose social identities are nested in a hierarchical structure involving ethnic identity (i.e., Han-ethnicity) and national identity (i.e., South Korean). The presumed link between social identity uncertainty and social identification was tested in a path model that stipulate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thnic identification (but not national identification) and individuals' attitudes and action intention toward intergroup reconciliation. Data were obtained from 1,000 adult Koreans residing in Korea using a stratified sampling method. A path analysis revealed that, as expected, subgroup (South Korea) identity uncertainty strengthened identification with the superordinate category (Han-ethnicity), which predicted positively attitudes towards intergroup reconciliation. Attitudes toward intergroup reconciliation, in turn, predicted positively individuals' intention to engage in reconciliatory behavior. By contrast, superordinate identity (Han-ethnicity) uncertainty did not predict subgroup (South Korea) identification. We also found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and action intention across several demographic variables. We discuss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from the perspective of an asymmetric compensation between superordinate identity uncertainty and subgroup identification in Korea. We also discuss practical implications and future directions.

*Keywords:* social identity, nested identity, identity uncertainty, inter-Korean relations, intergroup reconciliation